



4년 전 베이징올림픽 노메달의 한을 풀었다. 한국레슬링의 희망 김현우가 8일(한국시간) 엑셀 노스 아레나에서 열린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에서 타마스 로린츠(헝가리)를 꺾고 금메달을 확정된 뒤 태극기를 든 채 포효하고 있다. 런던 | 연합뉴스

‘불자’ 부모님이 끓여준 보신탕 먹고 금빛 포효

전영희 기자의 런던 리포트

1 김현우 레슬링 8년만의 금 비밀

종교기도도 넘은 특별 보양식 먹고 불끈
고향 중학교에 유도부 없어 레슬링 전향



8년만의 레슬링 올림픽 금메달. 그 뒤에는 독실한 불자지만, 금기를 깨면서까지 아들의 보양식을 준비했던 부모의 절절한 사연이 있었다.

아들의 눈은 시퍼렇게 부어 있었다.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아들의 경기를 지켜보던 부모의 눈도 부었다. 아들은 '16강전부터 상대 선수와 연달아 부딪혀서', 부모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눈물을 흘려서'였다. 김현우(24·삼성생명)가 8일(한국시간) 엑셀 런던 노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2런던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에서 타마스 로린츠(헝

가리)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 순간 아버지 김영구(60) 씨와 어머니 박영호(55) 씨는 "우리 아들 잘하고, 고맙다"를 외쳤다.

● 왜 독실한 불자인 부모는 보신탕을 끓여야 했나?

금메달 도전 일주일 전에도, 또 하루 전에도 어머니는 절에 가서 정성스레 불공을 올렸다. 사실 김현우가 운동을 시작한 이후 어머니는 아들 만나듯 절에 갔다.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자비'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한번도 어긴 적이 없는 선량한 가족이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처음으로 불교의 금기를 꺾적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보신탕이 잘 맞다는 얘기를 들

었다. 잠시 고민했지만 자식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다. 그 길로 시장에 가서 정성껏 탕을 준비했다. 부모 마음을 헤아린다면, 금기를 어긴 일도 충분히 용서받을 것이라 믿었다. 아들이 보신탕을 먹고, 경기에서 1등을 하는 날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아들에게 바치다 보니, 시나브로 손맛이 쌓였다. 김현우네 보신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서 입소문을 탔다. 이들 부부는 주변의 권유에 잠시 보신탕집을 열기도 했지만, 이내 그만두고 이제는 아들을 위한 탕만 끓인다. 아버지는 8일 "현우가 '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 보신탕 말고도, 묵은 김치를 넣은 등갈비와 닭볶음탕도 정말 좋아한다. 빨리 아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해주고 싶다"며 웃었다. 김현우는 "부모님께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 형한테 씨름 지면 분해서 잠 못 이루던 아들

김현우에게는 세 살 많은 형(김민우 씨)이 있다. 둘은 어릴 때부터 방바닥에 이불을 깔아 놓고 씨름을 했다. 살바까지 준비한 그럴듯한 경기였다. 아무리 타고난 몸이지만, 꼬마가 세 살 위의 형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 때마다 김현우는 억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침에 손가락을 못 뜯 정도로 씨름을 하는 한이 있어도, 꼭 형을 이겨야 잠을 잤다"고 회상했다. 운동신경과 승부근성을 지닌 아들은 초등학교 때 유도를 시작해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원주에는 유도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었다. 때마침 당시 평원중학교 레슬링부 최호준(현재 개인사업) 코치가 김현우의 재능을 알아봤다. 결국 중학교부터 레슬링을 시작해 세계 정상에 섰다. 현재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아버지 김영구 씨는 올해로 환갑을 맞아 이달 정년퇴임을 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장 빛나는 환갑·퇴직 선물을 한 셈이다.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투혼의 금메달은 자신의 멘토이자 필생의 스승인 두 은인의 한을 풀어준 쾌거였다. 김현우(왼쪽)가 금메달을 확정된 뒤 방대두 총감독(오른쪽) 등 코칭스태프와 맞절을 하고 있다(위 사진). 아래 사진은 관중석에서 지켜본 김인섭 삼성생명 코치(왼쪽)와 포옹하는 김현우. 런던 | 연합뉴스

“金현우 확실!”...KISS의 예감 왜?

(체육과학연구원)

상대근력 측정서 레슬링대표팀서 최고 지구력도 1위...결승전 무쇠체력 비결

체육과학연구원(KISS) 정동식 박사는 "김현우(24·삼성생명)가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을 통틀어 레슬링대표팀에서 가장 체력이 우수한 선수"라고 결론짓는다. KISS는 이미 런던올림픽 개막 전부터 김현우를 가장 유력한 레슬링 금메달 후보로 점찍었다. 올 2월과 5월 실시한 체력측정 결과 때문이다. 해외 논문들에 따르면, 엘리트 레슬링 선수와 일반 레슬링 선수 사이에는 최대근력이 7~25% 정도 차이가 난다. 또 경기 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파워를 발휘해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근지구력도 승패의 관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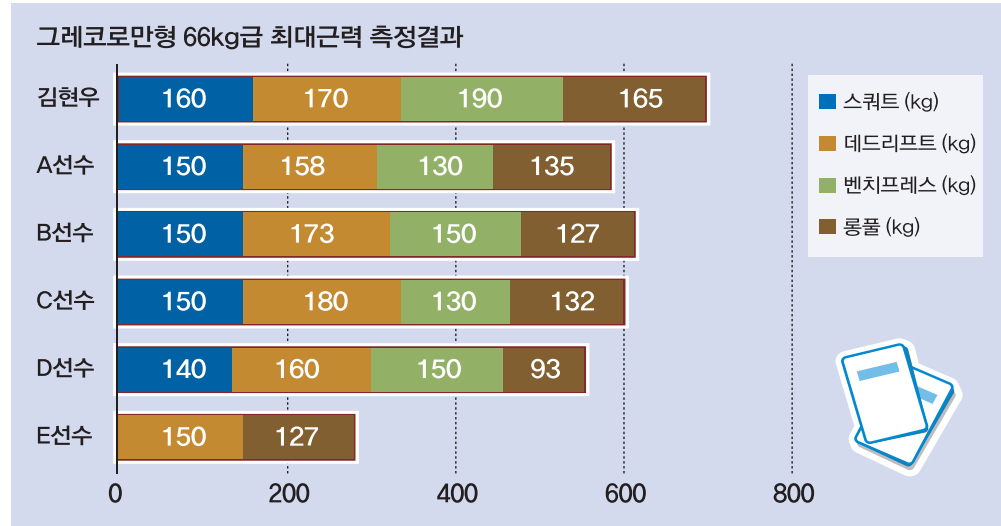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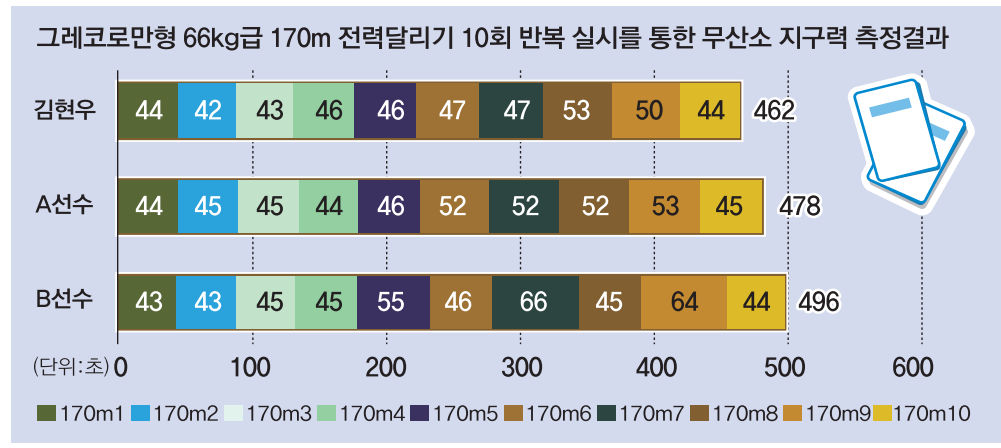
KISS의 자료에 따르면, 김현우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어떤 기구를 통한 최대근력 측정에서도 동급(66kg급) 최강을 유지했다. 체급이 높은 선수는 당연히 최대근력 또한 높다. 그래서 정동식 박사는 상대근력 개념

을 도입해 체급이 다른 선수들끼리의 근력도 비교했다. 상대근력이란 해당 선수의 최대근력을 그 선수의 체급으로 나눈 값이다. 김현우는 상대근력 부분에서 2월과 5월 모두 측정정에 참가한 대표선수 중 1위(2.59)를 차지했다. 상대근력 2.50 이상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지표로, 트레이닝의 최종 목표다.

김현우는 무산소지구력 부분에서도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서 독보적 1위에 올랐다. 이 측정지는 20~25° 오르막 경사에서 170m 전력달리기를 10회 반복해 그 기록(초)을 재는 방식으로 실시(2·5월)됐다. 5월 측정 1회 때 44초를 기록한 김현우는 최종 10회 때도 44초 페이스를 지켰다.

이는 8일(한국시간) 마지막 결승전까지도 강인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KISS 최규정 박사는 "김현우가 2월에도 최고의 체력을 보유했지만, 5월에는 더 수치가 향상됐다. 이는 고된 훈련을 이겨낸 결과물이다"고 설명했다.

런던 | 전영희 기자



‘여신’ 손연재, 한국 리듬체조 새역사 쓸까

클릭 런던

2012런던올림픽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의 여신이 드디어 자태를 드러낸다. 리듬체조 손연재(18·세종고)가 9일(한국시간)부터 이틀간 개인종합 예선에 출전한다. 리듬체조에는 개인종합과 단체 등 2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손연재는 개인종합 결선 진출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곤봉·리본·볼·후

프 등 4개 종목을 모두 실시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 10명이 겨루는 개인종합 결선은 11일 열린다.

손연재는 결선에 진출만 해도 한국리듬체조의 역사를 다시 쓴다. 한국리듬체조는 역대 올림픽에서 단 한명의 결선 진출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리본과 후프에 강한 손연재는 올해 전 종목에 걸쳐 고르게 기량 향상을 이뤄 기대를 모은다.

종목	세부사항	성별	경기시간	출전선수	장소
리듬체조	개인	여	예선 9일 오후 8시	손연재	웰블리 아레나
레슬링	자유형 55kg급	여	예선 9일 오후 9시 결승 10일 오전 2시15분	엄지은	엑셀 노스 아레나2
하키	단체	남	7·8위전 9일 오후 7시30분	한국vs파키스탄	하키 센터
배구	단체	여	4강전 9일 오후 11시	한국vs미국	엘스 코트 발리볼 센터 코트
핸드볼	단체	여	4강전 10일 오전 1시	한국vs노르웨이	바스켓볼 아레나

엄지은(25·서울중구청)은 9일 레슬링 여자 자유형 55kg급에 출전하고, 남자하키대표팀은 파키스탄과 7·8위전을 치른다. 최유성 기자 tyong@donga.com 트위터@tyong11

두 스승 한까지 풀었다

방대두 총감독 전성기때 냉전으로 올림픽 좌절
김인섭 코치 시드니때 부상으로 통한의 은메달

예선에서 상대 선수와 부딪혀 부상을 당한 오른쪽 눈을 준결승 이후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통증 부어올랐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하지 않고 부딪쳤다"는 그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했다.

김현우(24·삼성생명)의 투혼은 한국레슬링의 자존심을 세운 쾌거이자, 그의 멘토인 두 스승의 한을 풀어준 값진 금메달이었다. 금메달을 확정된 뒤 그는 방대두 레슬링대표팀 총감독에게 큰절을 올린 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소속팀 김인섭 코치에게 달려가 감격적 포옹을 나눴다.

방 총감독은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때 선수로서 전성기였지만, 냉전의 영향으로 한국이 불참하면서 금메달 도전 기회를 잃었다. 4년 뒤 LA올림픽에선 동메달에 머문 아쉬움을 갖고 있다. 김 코치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부상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결승에 나섰지만 은메달에 그친 아픔을 겪었다. 왼쪽 갈비뼈 통증으로 진통주사를 맞았고, 손가락 2개는 꺾여서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표정관리까지 했지만 부상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당시 레슬링 관계자들은 "김인섭이니까 은메달을 땀"이라고 위로했지만, 김 코치에게는 두고두고 아쉬운 순간이었다.

김 코치는 특히 김현우가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2010년 광저우아시아안계에서 2회전 탈락이라는 아픔으로 방향할 때 다시 코트로 이끈 은인이기도 하다. 김현우는 금메달을 따낸 뒤 "김 코치님께서 힘을 때마다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다"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방 총감독은 "내가 메달을 땀 때보다 더 기쁘다"며 자신의 한을 풀어준 제자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드러냈다. 런던 | 전영희 기자